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조시마스 수사



이집트의 성 마리아 수녀

사순절 제5주일

성 마리아 이집트의 수녀

제8조 / 조과복음 8

성 대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46, A 139

· 성 마리아 이집트의 수녀 찬양송 / 비교정
축일 성가집 51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B 228

· 사도경 : 히브리 9, 11-14 / 234, 봉독서 457

· 복음경 : 마르코 10, 32-45 / 141, B 99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 62, A 171

성 쾨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위한 조언”

자녀가 마약을 하거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부모에게 욕을 하고 대드는 행동들 때문에 수많은 부모들이 나를 찾아와 울면서 자신의 자녀를 도와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을, 또 그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과 나날들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처한 곤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낳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녀를 갖고 싶다는 열망과 자녀를 갖지 못하는 한 가지 슬픔만 있었지만, 지금은 자녀로 인한 엄청난 문제들로 수많은 회한과 슬픔들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 기도 부끄러울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나에게 기

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 불행한 아이들을 위해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냐?” 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이들이 이미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라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줍니다. “아이들의 유년기 때는 전혀 상관하지 않다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쁜 결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밀가루 반죽과 같습니다. 반죽이 부드러울수록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더 어릴수록 덕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기에 좋습니다.”

가벼운 멩에

정교회의 바른 믿음은 하느님 나라를 상속 받기 위한 긴 여정 속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안내 표시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길을 잃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안전하게 목적지인 하느님 나라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특히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는 이들에게 가벼운 짐을 지어주시며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내가 지워주는 가벼운 멩에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이 가벼운 멩에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 능력들을 발휘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아픈 이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이들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얼마간의 빵과 물이 있으면 이것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다 따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험하고 좁은 길로 보일 뿐이지 바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쉽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길이요 축복의 멩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박해와 순교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거쳐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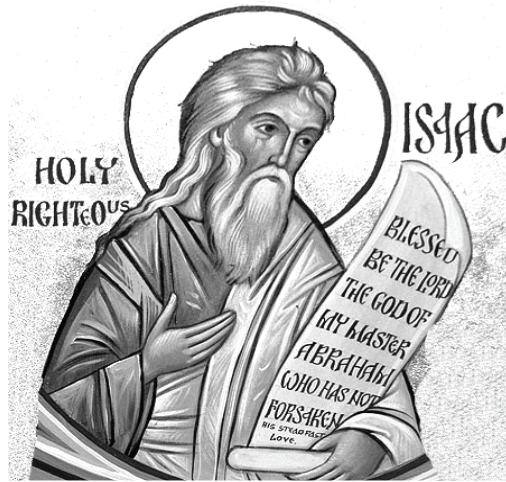
도 초대 교회에서 겪었던 많은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알지 못하던 질병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도처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뜻하지 않았던 여러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준비되지 않은 수명 연장으로 인해 가난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어 내는 일들이 순교나 박해 못지않게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참고 이겨나가며 기도 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 순교자들이나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물질 만능의 시대에서 오는 욕망들을 억제하며 절제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 저주, 질투, 시기, 자기애, 학대, 나태, 방관, 허영 그리고 거룩함을 거슬리는 육적인 것들에 대항하여 금식과 기도를 무기 삼아 욕망을 사멸시킬 때에 비로소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사순절이라는 거룩한 영적 여정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는 축복된 기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우시는 이 가벼운 멩에를 짊어지고 대사순절을 임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 다니엘 나창규 신부

성 미삭 시리아인 III



담대하게 기도하라

당신 삶의 매 순간마다, 그분을 생각하고 마음 속에 그분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앉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간 뒤에서야 그분을 만나게 될 때는, 부끄러움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자유를 잃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유는 그분과 계속해서 변함없이 관계를 가짐으로써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료나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갖는 유대 관계는 몸을 포함하지만 반면에 그것이 하느님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영혼의 명상과 기도의 봉헌이 포함됩니다.

그 엄청난 강도(強度) 탓에 이런 종류의 명상은 때때로 놀라운 경외감과 함께 뒤섞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오, 나의 동료 죄인들이여, 주님을 찾으시오. 그리고 당신의 생각들을 희망으로 강하게 하시오.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 그분의 얼굴을 찾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 얼굴의 거룩함에 의해 성화(聖化)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악함과 부정함은 깨끗이 씻어질 것입니다.

악으로 더러워진 이들이여, 주님께로 달려가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악한 것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죄는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 아타나시아



